

# 이상혁, 실외경기서도 2022시즌 공동 세계 1위

남자 높이뛰기 실내 세계랭킹서 2m36 단독 1위

시즌 첫 실외경기 2m30...시즌 공동 1위 자리

2022시즌 남자높이뛰기 실내 세계랭킹 1위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이번 시즌 실외 경기 세계랭킹에서도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상혁은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51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 남자 일반부 결선에서 2m30을 뛰어넘어 우승했다.

중별선수권대회는 이상혁의 올 시즌 첫 실외 경기였다.

2m30은 2022시즌 실외 경기 세계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해 실외 경기에서 2m30을 뚫은 선수는 이상혁, 해미시 커(뉴질랜드), 벵슨 터너, 어니스트 시어스(이상 미국) 등 4명 뿐이다.

겨우내 실내경기 위주로 진행되던 육상대회는 이제 조금씩 실외에서 펼쳐진다. 올해 실외 경기가 많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1을 넘는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가는 실내 경기에서는 이상혁이 2022시즌 세계랭킹에서 단독 1위에 올라있다.

이상혁은 올해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실내) 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6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인도어(실내) 투어 높이뛰기 대회에서는 2m35로 정상에 섰다.

이상혁은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2m34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2시즌 실내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 이상을 뚫은 선수는 이상혁이 유일하다. 2위인 주본 해리슨(미국)은 2m32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에서 공동 1위에 오른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이 아직 올해 첫 경기도 치르지 않는 등 올림픽이 열린 다음 해라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시즌을 다소 천천히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혁은 올해 첫 실외경기에서도 공동 1위 기록을 써내며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다.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 남자 일반부 결선에서 2m30을 기록해 우승한 이상혁. (사진 = 대한육상연맹 제공)

이상혁은 5월부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참가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어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에 도전하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향한다.

뉴시스

# 췌기타로 통산 2000안타 이용규 "19년 주마등처럼"

키움 히어로즈 '캡틴' 이용규(37)의 통산 2000번째 안타는 팀 승리에 췌기를 박는 큼직한 2루타였다.

이용규는 1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쏘 KBO 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1998안타를 기록 중이던 이용규는 안타 2개를 때려내면서 개인 통산 2000안타를 채웠다.

1회초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몰려나 이용규는 3회초 무사 1루에서 중전 안타를 쳐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이용규는 4회초 불빛을 끌었고, 7회초에는 삼진으로 몰려나 2000안타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용규의 2000번째 안타가 나왔다. 6-0까지 앞섰던 키움은 7회말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대거 4점을 내줘 6-5까지 쫓겼다. 살얼음판 리드가 이어지던 9회초 키움은 1사 후 김주형이 좌월 2루타를 때려내 추가점을 낼 찬스를 잡았다.

후속타자 박찬혁이 3루 땅볼로 몰려나 아웃 카운트만 하나 더 올라간 상황. 이용규 타석에 돌아왔다. 이용규는 SSG 우완 불펜 요원 이태양의 4구째 커브를 노려쳐 우중간 담장을 직접 때리는 2루타를 작렬. 2루 주자 김주형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췌기타였기에 이용규의 통산 2000번째 안타는 한층 빛이 났다. 이용규는 김해성의 우전 안타 때 홈으로 들어와 췌기 득점까지 안겼다. 키움은 SSG를 8-5로 꺾고 2연승을 질주, 10승째(5패)를 수확해 공동 2위로 올라섰다.

KBO리그 역대 15번째로 2000안타 고지를 밟은 이용규는 "통산 2000안타를 달성해 기쁘고, 흥분하다. 생각하다보면 안타가 더 안나올 것 같아 빨리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마지막 타석에서는 욕심이 나더라"고 떠올렸다.

2000안타를 친 뒤 이용규는 왼손 검지와 중지를 들어올려 '2'를 표시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0'을 만드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이용규는 "췌기타를 치면 우리 팀끼리 하는 세리머니가 있는데, 혹시 오늘 2000안타를 치면 기념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안타를 꼽아달라는 말에 이용규는 쿠바와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선전 2루타를 꼽았다. 2000안타에는 포함되지 않는 안타다. 이용규는 "쿠바와의 베이징올림픽 결선전에서 친 2루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짜릿했다"면서 "프로에서 친 2000개의 안타는 모두 생각이 난다. 끝내기 안타도 있지만, 2000개의 안타 중 극적인 안타는 없는 것 같다. 어느 하나를 꼽기는 힘들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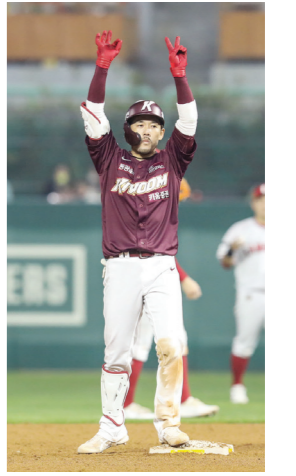
프로에서 뛰는 19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한 모습을 자랑해 달성한 기록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이용규는 "2000번째 안타를 치는 순간 내가 했던 야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19년이 지나갔다"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는 "통산 2000안타는 이전에 대단한 선수들이 달성한 기록이다. 내가 프로에 들어왔을 때 체구가 작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았다"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프로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 빨리 내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기록"이라고 말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이용규는 "체중에 무척 예민하다. 체중이 72kg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한다. 나 같은 스타일의 야구 선수는 스피드가 떨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주루 플레이, 수비에서 뒤처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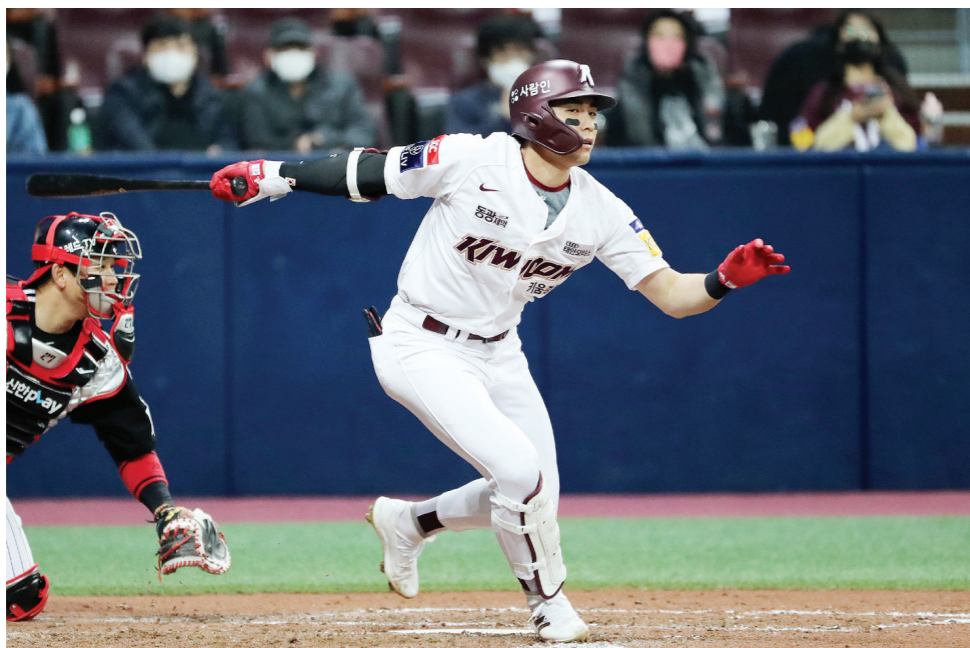
2020시즌을 마친 뒤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돼 현역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위기도 있었다. 마침 외야 지원을 보장하려던 키움에 손을 내밀었고, 이용규는 지난해 타율 0.296, 출루율 0.392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용규는 "지난 시즌 초반 보여줘야 한다는 욕심이 컸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4월에 보여주지 못하면 주전에서 밀린다는 생각에 조금했고, 해했다"며 "긴 슬럼프에도 감독님과 코치진이 믿어주셨다. 경기를 계속 나가면서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드러냈다.



뉴시스

# 전설 넘어 전설로...이정후, 장효조 넘어 역대 타율 1위



바야흐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의 시대.

KBO리그 입성 때부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이정후가 데뷔 6년 만에 '통산 타율 1위'로 올라섰다. 한국 야구의 전설인 고(故) 장효조까지 밀어냈다.

18일까지 통산 2997타석을 소화 중이던 이정후는 19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5타석을 소화했다.

통산 3002타석에 들어서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00타석 이상을 기록한 타자들

들을 대상으로 매기는 통산 타율 순위에도 포함됐다.

등장과 함께 순위표 최상단을 차지했다. 이날 4타수 1안타를 치며 통산 타율 0.339(2654타수 901안타)를 작성한 이정후는 통산 타율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데뷔 6년만에 통산 타율 1위

KBO 3000타석 이상 타자 대상

2017년 데뷔 후 꾸준히 성장

큰 슬럼프도 없어 성적 기대

1위를 지키고 있던 장효조는 2위로 내려갔다. 장효조는 한국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타자다. 정교한 타격을 자랑했던 그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뛰며 통산 타율 0.331(3050타수 1009안타)를 때려냈다.

그러나 이정후는 대선배도 가볍히 넘어섰다. 등장부터 남달랐던 타자다.

뉴시스

# 전남 사이클 미래들 전국대회서 금 10개·은 10개·동 5개 수확

전남체육·나주빛가람중·나주 금성중·전남체고·나주미용고

나주시청·강진군청 사이클...은메달 1개·동메달 5개 획득



전남체육회는 나주 금성중-전남체고(사진 왼쪽 위)-나주빛가람중(사진 아래)-전남체고(사진 오른쪽 위)-나주미용고 사이클팀이 나주시청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전남체육·나주빛가람중·나주 금성중·전남체고·나주미용고 등 전남을 대표하는 사이클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최고임을 입증했다. 전남체육회는 나주 금성중·전남체고·나주 빛가람중·전남체고·나주미용고 사이클팀이

나주시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여중부에 출전한 전남체고와 나주빛가람중이 금 5개, 은 5개, 동 2개를 수확했다.

전남체고 강소은은 여중부 개인추발에서 1분21초572로 은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강소은은 황윤미·오유라·박영서가 출전한 단체추발에서 2분48초1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또 황윤미가 스크래치에서 금메달, 단체스프린트(1분20초256)에서도 황윤미·박영서·강소은이 출전해 금메달, 200m에서 박영서와 강소은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 1Lap에서 박영서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체고 황윤미는 3관왕(단체추발·스크래치·단체스프린트)을 달성했으며 전남체고는 여자 16세이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나주빛가람중은 독주경기에서 홍윤화가 38초882로 금메달, 단체추발에서 2분58초445로 은메달, 스크래치에서 신민서가 동메달,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22초261로 전남체고에 이어 은메달, 200m에서 전남체고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총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수확했고 홍윤화는 2관왕에 올랐다.

나주 금성중의 이채현·정원영·윤신우·윤시우는 남중부 단체추발에서 3분54초04의 기록

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여자고등부에서는 전남체고 김채연이 독주경기에서 36초812로 금메달, 단체추발에서 김채연·최연경·송유진·안영서 조가 5분26초074로 대전체고를 제치며 금메달, 단체스프린트에서 안영서·김채연·최연경이 1분13초581로 금메달, 스프린트에서 김채연이 은메달, 유니폼에서 안영서가 은메달, 1Lap에서 27초061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총 금 4개, 은 2개를 가져왔다.

전남체고 김채연과 안영서는 3관왕을 달성했으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미용고는 나윤서가 스프린트에서 금메달, 독주경기에서 은메달, 개인추발에서 신희원이 2분43초449로 은메달, 1Lap에서 신유민이 27.697로 은메달, 경륜에서 신유민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총 금 1개, 은 3개, 동 1개를 목에 걸었다.

일반부에서는 나주시청 정설화가 36초505로 동메달, 경륜에서 김하은이 동메달, 단체스프린트에서 김하은·정설화·박미남이 1분11초108로 동메달, 1Lap에서 정설화가 25초828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독주경기에서 강진군청 안희상이 1분55초783으로 동메달, 스크래치에서 김지호·안희상이 나란히 2, 3위를 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정도 전남사이클경기장은 "전남 사이클의 미래들이 겨우내 흘린 땀의 결실을 이번 대회를 통해 맺었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남 사이클의 명맥을 잇겠다"고 밝혔다.